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www.gwangjufc.com

APRIL 2016 No.2

Joma

더불어사는 광주시민
더불어 행복한 광주

TACTICS

정조국이 보여준 침투의 정석

‘환상의 짝꿍’ 여름 · 이찬동

GWANGJU FC STAR

‘그라운드의 마술사’ 김민혁

PREVIEW

4월 결과에 초반 순위 싸움이 결정된다!

4월 09일(토)

14:00



vs 울산 현대

4월 13일(수)

14:00



vs FC서울

4월 24일(일)

14:00



vs 수원 삼성

KSPOT

※ 이 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쾌조의 출발을 알린 3월의 광주FC

광주FC가 2016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광주는 시즌 첫 경기를 극적인 무승부로 마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어진 홈 개막전에서는 시원한 승리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초반 성적을 좌우할 2경기에서 1승 1무라는 만족할 성적을 거두면서 앞으로 있을 경기에도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됐다.

[1R] '새 얼굴' 정조국·김민혁의 화끈한 신고식

광주FC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사실 광주의 올 시즌 전망은 그리 좋지 않았다. 김호남(제주 유나이티드), 임선영, 안영규(이상 안산 무궁화), 정준연, 제종현(이상 상주 상무) 등 핵심 멤버들이 연이어 이적 또는 군입대로 빠져 나갔다.

하지만 나간 선수가 있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선수도 있다. 광주는 FC서울에서 광주로 온 정조국, 김민혁을 앞세웠다. 두 선수는 포항전에서 골을 합작했다. 전반 17분 김민혁은 헤딩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볼을 전방에 노마크 상태인 정조국에게 바로 패스를 찔러줬다. 정조국은 베테랑답게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한 슈팅으로 선제골에 성공했다. 정조국은 후반 20분 추가골까지 성공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화끈한 신고식을 보인 정조국과 김민혁의 활약에 다른 선수들도 자극을 받으며 더욱 투지 있는 플레이로 광주의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올 시즌 한층 발전하고 나아진 경기력을 기대하게 했다.

[2R] 정조국 연속골, 광주 시즌 첫 승

정조국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광주FC에 시즌 첫 승을 안겼다. 광주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2라운드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승리의 일등공신은 정조국이었다.

정조국은 0-0으로 팽팽히 맞선 후반 19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포항전 2골에 이은 2경기 연속골이자 2경기에서 3골을 넣는 등 막강한 득점력을 과시했다. 그는 2경기 연속골로 자신의 부활을 알렸다. 아울러 한 발 더 뛰는

3월 12일 16:00
포항스틸야드

포항 스틸러스 3-3 광주FC

| 포항 | 광주 |
|--------|--------|
| 전 | 전 |
| 16 정조국 | 13 권용현 |
| 24 김영빈 | 15 김호남 |
| 33 이으뜸 | 18 까랑가 |
| 후 | 후 |
| 0 서명원 | 0 김현 |
| 20 정조국 | 권용현 |
| 22 김동현 | 13 이창민 |
| 정원진 | 마르셀로 |
| 24 이으뜸 | 정조국 |
| 28 박동진 | 주현우 |
| 김민혁 | 조성준 |
| 29 김정현 | 정조국 |
| 이찬동 | 32 |
| 34 홍준호 | 37 |
| 42 양동현 | 37 |
| 45 심동운 | 42 |
| 46 김진환 | 43 |
| 정조국 | 45 |
| 47 황지수 | 45 |
| 50 이종민 | 47 |
| 52 김대호 | 47 |
| 53 김정현 | |

3월 19일 16:00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FC 1-0 제주 유나이티드

| 광주 | 제주 |
|--------|--------|
| 전 | 전 |
| 13 권용현 | 13 권용현 |
| 15 김호남 | 15 김호남 |
| 18 까랑가 | 18 까랑가 |
| 후 | 후 |
| 0 김현 | 0 김현 |
| 권용현 | 권용현 |
| 13 이창민 | 13 이창민 |
| 마르셀로 | 마르셀로 |
| 정조국 | 19 |
| 주현우 | 28 |
| 조성준 | 28 |
| 정조국 | 32 |
| 32 | 32 |
| 37 | 37 |
| 42 | 42 |
| 43 | 43 |
| 45 | 45 |
| 47 | 47 |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며 광주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정조국의 활약으로 광주는 최전방에 숨통이 트였다. 확실한 득점원의 존재는 경기의 향방을 바꿀 주요한 요인이다. 포항, 제주전을 통해 잘 나타났다. 광주는 정조국의 존재로 언제든지 골을 터뜨릴 자신감이 생겼다. 정조국도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며 광주의 승리를 위한 선봉장으로 확실한 자리매김했다.



4월 결과에 초반 순위 싸움이 결정된다!

3월 2경기에서 1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한 광주FC. 이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선다.

광주는 시즌 첫 상대였던 포항 스틸러스와 3-3으로 비겼다. 이어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는 정조국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1승 1무의 성적으로 광주는 초반 K리그 클래식을 2위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팀 당 2경기를 했을 뿐이다. 본격적인 K리그 클래식은 지금 시작이다. 그리고 4월에 치르는 5경기는 초반 판도를 정할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이다.

광주의 4월 상대는 수원FC, 울산 현대, FC서울, 전남 드래곤즈, 수원 삼성이다. 5팀 모두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4팀의 순위가 하위권에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의 전력을 낮게 볼 수 없다. 승격 팀인 수원FC를 제외하고 광주는 지난해 전남에만 2승 1무 1패로 앞섰을 뿐 서울(2무 1패), 수원(1승 2패), 울산(1승 3패)에는 상대전적에서 뒤졌다. 상대팀들의 출발이 더뎠을 뿐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광주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뒷심도 생겼다. 이는 포항전 3-3 무승부에서 잘 나타났다. 광주는 2-3으로 뒤졌지만,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다.

또한 정조국이 득점포가 불타오르고 있다. 정조국은 3월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광주 공격의 선봉자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조국의 득점포가 4월에도 이어진다면 광주는 수월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승점을 얻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시즌 일정을 소화하는 4월. 광주의 올 시즌 초반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2016 K리그 클래식 중간 순위

(4월 1일 기준)

| 순위 | 팀 | 승점 | 승 | 무 | 패 | 득점 | 실점 | 득실차 |
|----|------|----|---|---|---|----|----|-----|
| 1 | 포항 | 4 | 1 | 1 | 0 | 5 | 3 | 2 |
| 2 | 광주 | 4 | 1 | 1 | 0 | 4 | 3 | 1 |
| 3 | 성남 | 4 | 1 | 1 | 0 | 3 | 1 | 2 |
| 4 | 전북 | 4 | 1 | 1 | 0 | 1 | 0 | 1 |
| 5 | 서울 | 3 | 1 | 0 | 1 | 4 | 1 | 3 |
| 6 | 제주 | 3 | 1 | 0 | 1 | 3 | 2 | 1 |
| 7 | 상주 | 3 | 1 | 0 | 1 | 2 | 4 | -2 |
| 8 | 전남 | 2 | 0 | 2 | 0 | 2 | 2 | 0 |
| 9 | 수원FC | 2 | 0 | 2 | 0 | 1 | 1 | 0 |
| 10 | 수원 | 1 | 0 | 1 | 1 | 0 | 2 | -2 |
| 11 | 울산 | 1 | 0 | 1 | 1 | 0 | 2 | -2 |
| 12 | 인천 | 0 | 0 | 0 | 2 | 1 | 5 | -4 |

4월

광주FC

경기 일정

4월 3일

14:00

vs 수원FC

원정

4월 9일

14:00

vs 울산 현대

홈

4월 13일

14:00

vs FC서울

홈

4월 17일

14:00

vs 전남 드래곤즈

원정

4월 24일

14:00

vs 수원 삼성

홈

‘패트리엇’ 정조국이 보여준 침투의 정석

광주FC가 ‘패트리엇’ 정조국의 활약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조국은 3월에 치른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는 고감도의 골감각을 과시했다.

특히 3골 모두 상대 수비의 허를 찌르는 배후 침투로 이루어졌다. 정조국이 보여준 침투의 정석이다.



vs 포항 스틸러스



전반 16분 선제골 (도움 김민혁)

정조국의 올 시즌 1호골이자 광주의 시즌 첫 골이었다. 0-0이던 전반 16분 정조국이 배후 침투로 골을 만들었다. 김민혁이 전진패스를 하자 상대 수비수 2명 사이를 파고든 정조국이 볼을 잡았다. 그리고 골대 오른쪽으로 돌파한 뒤 재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vs 포항 스틸러스



후반 20분 추가골 (도움 이요뜸)

정조국의 2호골로 포항전 멀티골이었다. 왼쪽 측면을 파고든 이요뜸이 문전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하자 페널티지역 가운데서 타이밍을 맞추던 정조국이 재빨리 문전으로 쇄도했다. 그리고 이요뜸의 패스에 발을 갖다 대 득점했다. 패스 타이밍, 쇄도, 마무리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포항 수비수들은 정조국의 침투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은 정조국의 침투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올 시즌 1호골이자 광주의 시즌 첫 골이다. 0-0이던 전반 16분 정조국이 배후 침투로 골을 만들었다. 김민혁이 전진패스를 하자 상대 수비수 2명 사이를 파고든 정조국이 볼을 잡았다. 그리고 골대 오른쪽으로 돌파한 뒤 재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vs 제주 유나이티드



후반 19분 결승골 (도움 송승민)

정조국의 3호골로 광주의 시즌 첫 승을 결정한 결승골이었다. 송승민이 공중볼을 상대 페널티지역으로 헤딩패스하자 근처에 있던 정조국이 재빨리 달려가 볼을 잡았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골대 구석을 향해 슈팅했다. 정조국의 순간적인 반응과 침투, 정확한 슈팅 타이밍이 어우러져 상대 수비수들은 3명이 정조국 근처에 있었지만 손을 쓰지도 못했다.

두 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포지션은 무엇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그 조합은 '1+1=2'가 아닌 '1+1=3'의 힘을 발휘한다. 투톱, 중원, 포백의 두 중앙수비수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줬을 때 갖고 있는 기량 이상의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FC의 중원은 그래서 강하다. 여름과 이찬동, 기술과 힘을 두루 겸비한 환상의 중원 조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3년째 발을 맞추고 있는 두 선수의 호흡은 눈빛만 봐도 통할 정도로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특히 광주의 시즌 첫 승 경기였던 제주 유나이티드전의 숨은 공신은 단연 허리진을 책임진 여름과 이찬동이었다.

두 선수는 중원에서 짝을 이뤄 호흡을 맞췄고, 제주의 소문난 중원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밀리기는커녕 허리 싸움을 주도하며 경기의 판을 좌지우지했다.

사실 개막전이었던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두 선수의 시너지는 2% 아쉬웠다. 이찬동이 부상의 이유로 경기 전날 하루만 훈련을 소화해 포항전에 급히 투입된 탓이 컸다. 남기일 감독도 "포항전에서는 이찬동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찬동이 부상으로 단 하루 훈련을 갖고 포항전에 나섰는데 그 여파가 경기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전은 180도 달랐다. 이찬동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면서 몸상태를 끌어올렸고 여름과 기대에 걸맞는 호흡을 선보였다. 공수 분배가 유기적으로 됐고 패스 플레이, 뒷공간 커버 등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형' 여름은 물오른 사령관이었다. 어느덧 팀내 중고참이 된 여름은 올 시즌 들어 한결 여유로워진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도 적재적소에 배급되는 패스와 답답한 흐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드리블 등으로 광주에 큰 힘을 보탰다.

여름이 사령관이라면 '동생' 이찬동은 살림꾼이었다.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중원은 든든히 지켰다. 소문난 파이터답게 상대 선수와 치열하게 부딪혔다. 여름이 공격에 가담하면 밑으로 내려 허리를 도맡았다. 공격 가담으로 생긴 측면 풀백의 빈 자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메웠다. 여름은 경기 후 "찬동이 뒤에 있으면 마치 만리장성이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든든하다. 가끔 찬동이 무서워서 같은 팀인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다"고 웃어 보인 뒤 "찬동과 호흡을 맞추는 지도 3년째 됐다.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플레이를 알 수 있는 사이다"며 이찬동과의 호흡에 커다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이찬동은 "내가 더 든든해져야 한다"면서 "3년째라 호흡이 괜찮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합류

광주의 허리는 우리가 지킨다!

‘환상의 짝꿍’

여름 & 이찬동



한 (김)민혁이랑도 친구라서 잘 맞는다. 지금 셋이 미드필더진에 서면 정말 믿음직하다.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동료들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광주가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포항전 무승부는 여전히 진한 아

쉬움으로 남지만 2경기 1승 1무는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적이다. 더불어 광주는 결과뿐만 아니라 주축 선수들의 이탈 우려를 덜어냄과 동시에 현 스쿼드의 경쟁력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팀이 흔들리지 않게 허리를 꽉 잡고 있는 여름과 이찬동이 있다.



활발한 이미지보다는 조용한 느낌을 준다. 본인 스스로 낮가림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만 들어서면 누구보다 대범해진다. 경기장 밖과 달리 그라운드 위에서는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다. 공격을 이끄는 선수로서 상대 수비진의 문제를 야기시킬 줄 안다.

난생 처음 광주 생활을 시작한 공격형 미드필더 김민혁의 이야기다. 올 시즌을 앞두고 FC서울에서 광주FC로 이적한 김민혁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서울에서만 지냈다. 광주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지방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얼떨떨했다. 막상 와보니깐 편하다"며 웃어 보였다.

지금이야 환하게 웃지만 낮가림이 있는 성격이라 초반에는 적응에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광주 선수단에 친구라도 있으면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테지만 딱히 알고 지내던 선수도 없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남기일 감독, 선수들은 광주를 말할 때 입을 모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가족이다"고 말한다. 김민혁은 새로이 온 가족이었고,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배려 속에 빠르게 광주에 녹아 들었다.

이어 "(이)찬동이랑은 동갑내기지만 이전에는 얼굴하고 이름만 알던 사이다. 찬동이가 워낙 성격이 좋다. 먼저 다가와줘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박)동진이도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선배들도 다 편하게 해주신다. (이)종민 형과 (정)조국 형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정말 잘 해주신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며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를 전했다.

정조국은 지난해 서울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사이다. 광주 이적도 함께 했다. 김민혁에게는 분명 대선배지만 초행길에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다. 김민혁은 "조국 형이 이적할 때 '같이 잘해보자. 광주와 6강도 한 번 올라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조국 형이랑은 서울에서도 같이 운동을 많이 해서 잘 맞는 것 같다"며 큰 형의 존재가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민혁은 촉망 받는 유망주였다. 2009년 고교 아시아 학생 대표를 지냈고 2014년 U리그 왕중왕전에서는 최우수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서울에 입단했으나 쟁쟁한 경쟁자들 틈에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간혹 그라운드에 나서 번쩍이는 재능을 선보였지만 1992년생으로 한창 성장해야 하는 김민혁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김민혁이 광주로 시선을 돌린 이유다.

김민혁의 선택은 옳았다. 동계훈련부터 꾸준히 남기일 감독의 신임을 받았고 개막전 포함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

울에서는 경기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다. 광주에 온 이후 출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기분이 진짜 좋다"고 말하는 김민혁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러면서 "계속 경기를 뛰지 못하다 보니 경기 감각이 부족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고 연습 경기에서도 계속 기회를 주셨다. 부담감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다"며 남기일 감독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계속해서 김민혁은 남기일 감독에게 감사를 표했다. "실수를 해도 거기에 대해 절대 나무라지 않으신다.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부담 없이 더 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 감독님의 배려야말로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고 덧붙였다.

남기일 감독은 여름과 이찬동 앞에 김민혁을 배치시킨다. 중원플레이를 중시하는 광주는 세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행히 세 선수는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광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김민혁은 중원 장악력과 수비력이 좋은 두 선수에 힘입어 갖고 있는 공격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이제야 막 발을 뻗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조합이다.

이에 김민혁은 "여름 형과 찬동이와의 호흡은 정말 좋다. 내가 수비적인 부분과 피지컬적인 요소가 약한데 그 점을 채워준다. 아무래도 내가 못하는 부분을 두 사람이 메워줘서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두 선수에게 의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피지컬을 보완하기 위해 웨이트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다. 코칭스태프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신다"며 하루 빨리 약점을 보완해 팀에 더 도움이 되는 선수로 거듭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혁의 올 시즌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는 것이다. 벤치가 아닌 피치 위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팀으로서는 클래식 잔류를 넘어서 그룹A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김민혁은 "일단은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는 것이 목표다. 공격포인트도 조국 형을 도와서 많이 올리고 싶다. 그리고 6강에 들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민혁은 광주 팬들에게 "모든 훈련, 모든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시면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할 수 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23
KIM MIN HYEOK
김민혁

2015년 시즌 기록

| | | | |
|------|---|----|---|
| 경기 | 2 | 경고 | 0 |
| 득점 | 0 | 퇴장 | 0 |
| 도움 | 1 | | |
| 파울 | 4 | | |
| 피파울 | 5 | | |
| 슈팅 | 0 | | |
| 유효슈팅 | 0 | | |

김민혁의 포지션



| | |
|-------|---------------------------------------------|
| 생년월일 | 1992.08.16 |
| 신장/체중 | 183cm/71kg |
| 포지션 | 중앙 미드필더 |
| 출신교 | 광운대 |
| 클럽경력 | 서울(2015), 광주(2016~현재) |
| 대표경력 | 2003 U-23 월드컵, 2006 아시안게임, 2008 동아시아컵 |

GWANGJU FC



2016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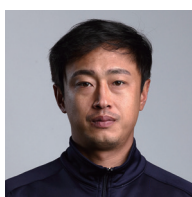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호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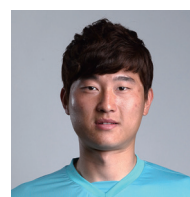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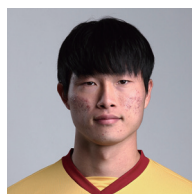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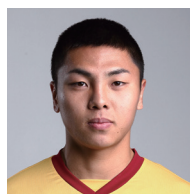
4 DF 웰링톤

1990.02.21 194cm/8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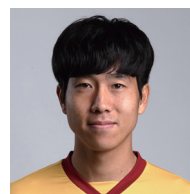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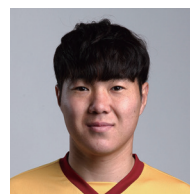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8 DF 이으뜸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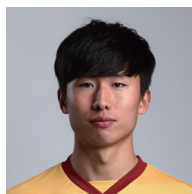
10 FW 파비오

1986.10.04 171cm/66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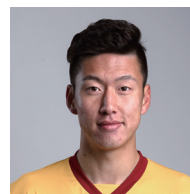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운

1994.04.03 175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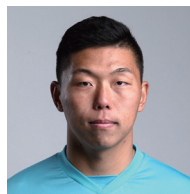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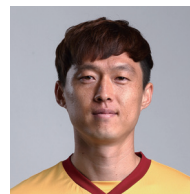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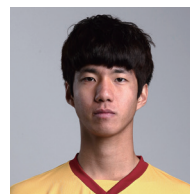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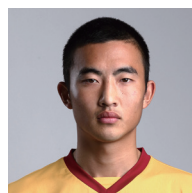
22 MF 조용태

1986.03.31 180cm/69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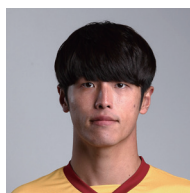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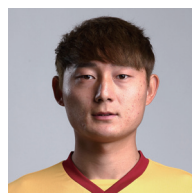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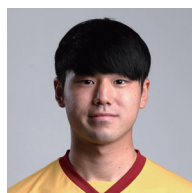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6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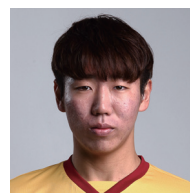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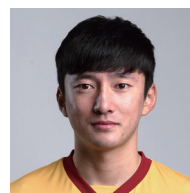
28 MF 김익신

1992.11.26 181cm/7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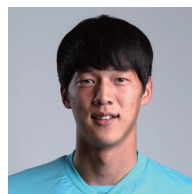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wangjufc



2016시즌 홈경기 일정

NEXT

4월 09일(토)
14:00



vs 울산 현대

4월 13일(수)
14:00



vs FC서울

4월 24일(일)
14:00



vs 수원 삼성

5월 5일(목)
16:00



vs 상주 상무

5월 28일(토)
16:00



vs 수원FC